동국대 전산원 명칭 변경 추진 46년만

6월 22일 법인 이사회서 보고

전산학원 오인 등 변경 시급해
'동국대DUICA' 등 후보에 올라
차기이사회서 논의 · 결정키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전산원(원장 손재현)이 기관명 변경을 추진한다. 1975년 설립된 동국대 전산원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설립 4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는 6월 22일 교내 로터스홀에서 제337회 이사회를 열고 동국대 전산원 명칭 변경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보고자로 나선 손재현 동국대 전산원장은 새로운 기관명 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공모를 통한 새 기관명 후보군에 대해서 설명했다.

손 전산원장은 "이미 숭실대와 강원대 등은 명칭을 변경해서 많은 신입생을 유치하고 있다"면서 "동국대 전산원도 시대에 맞게 인문과 IT를 아우르는 새 명칭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관명은 전산원의 미래 비전과 지향하는 가치를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전산원은 지난해 내부공모를 통해 새로운 명칭 후보를 선발하려 했으나 적합한 명칭을 찾지 못했고, 올해 초 전문업체 의뢰를 통해 6개의 새 명칭을 제안받았다. 이후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해당 6개 후보군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선호도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지지를 받은 명칭은 '동국대 핵심역량교육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동국대 DUICA(듀이카)'였다.

손 전산원장은 "전산원의 새 명칭 후보인 '동국대 DUICA'는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를 직관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면서 "학생 역량을 키우는 교육기관이라는 이미지도 강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국대 전산원 명칭 변경 결정은 차기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관명 변경이 확정되면 동국대 전산원은 기관 이미지 제고와 시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손 전산원장은 "진학지도를 위해 일선 고등학교를 방문하면 동국대 전산원을 전산학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기관명 변경은 시급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기관명으로 변경되면 이를 알리기 위해 일선학교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를 선도하고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개발 · 신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법인직원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 △학과 · 대학의 신설과 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해외자산 취득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 · 의결했다.

학과 · 대학의 신설과 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간호학과 정원을 15명 확대하고 자유전공학부 정원 15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이사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 경주캠퍼스 간호학과의 2022학년도 신입생 정원은 기존 70명에서 85명으로 확대된다. 앞서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지난 5월 간호대학을 신설하고 간호대학 내 간호학과 이외에 보건의료정보학과(정원 30명), 뷰티메디컬학과(정원 30명)를 신설해 3개 학과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이사회는 자매결연 관계인 DULA의 건물 매각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자산 취득 취소'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DULA 건물을 매입키로 하고 지난 2019년부터 10년 동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DULA는 '상호 협의 하에 매각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매매 계약 조항을 근거로 취소를 요청해왔고, 이사회는 건학위원회 운영 등 국내 사업 강화 등을 위해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그간 납입된 22억 원 가량의 매매자금 전액은 학교법인 동국대로 환수되게 된다.

정세균 후보, 전통문화 보존에 방점

6월 17일 대선 출마 선언
불교 관련 추진정책 제시



제20대 대통령 선거출마를 선언한 정세균<사진> 前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불교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정세균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6월 18일 불교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불교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첫 번째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의 보존 · 전승을 위한 기념관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제시했다. 기념관 건립 뿐 아니라 보존계승을 위한 정책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전통사찰 보존과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전통사찰 규제법령과 제도 정비 및 불교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의 강화 및 예산 지원 확대 등 전통문화와 관련한 방안도 약속했다. 전통사찰 전기료 체계를 개선하고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공론화 해 보존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10.27법난기념관과 치유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지원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상처 치유에 나선다.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불교 교류 ·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후보는 끝으로 "사회통합과 차별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종교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차별을 금지해 다문화시대 종교 ·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6월 17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 후보는 민주당 대표시절 당내 국회의원 불자모임인 '연등회' 창립을 주도하고,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등 사찰 불교전통문화 계승 및 불교계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봉은사, 사찰음식 대중화 사업 전개

부설 사찰음식문화연구소 개소

전문업체와 협력해 상품화
레시피 제공, 밀키트 구성
홈쇼핑 진출 계획 모색도



봉은사는 6월 20일 봉은 사찰음식문화연구소를 개소하고 사찰음식 대중화의 첫발을 뗐다.

서울 강남 대표사찰인 봉은사(주지 원명)가 사찰음식 대중화에 나섰다. 서울 봉은사는 6월 20일 봉은 사찰음식문화연구소를 개소하고, 소장으로 사찰음식 전문가 우관 스님을 임명했다. 봉은 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사찰음식이 최근 건강음식으로 각광받으며, 가정식 등의 수요가 발생하는 것에 맞춰 자연치유음식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해 개소했다.

연구소에서는 향후 온라인 판매까지 염두해 가정간편식을 연구, 수익사업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사찰음식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 복지와 봉사활동을 통해 힐링센터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맥스 식품사업부와 협의해 생산 및 유통과정을 구성해 식품업체에 사찰음식 레시피 제공, CJ오쇼핑 등에 사찰음식 런칭, 해외 수출 위한 글로벌 공급망 확대, 이슬람 할랄음식까지의 영역 확대 등도 추진한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사찰음식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했다. 사찰음식은 불교 전통문화를 넘어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된 만큼 이를 널리 알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특히 최근에는 현대인들의 건강음식에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시대흐름에 맞는 다양한 연구개발이 기대된다"고 기대를 표했다.

소장으로 임명된 우관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교재편찬위원과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사단법인 마하연사찰음식문화원장으로 있다. 조계종 교수아사리로 후학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스님은 2013년 조계종 사찰음식 표준교재 초 · 중 · 고급을 공저했으며, 〈우관 스님의 손맛 깃든 사찰음식〉 〈우관 스님의 사찰음식 보리일미〉 등 저서가 있다.

사찰음식 국내외 행사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2010년 뉴욕 한국사찰음식의 날 홍보행사 도감을 맡았으며, 인천아시안게임 아시아음식문화축제에서 사찰의 소박한 밥상을 전시하고, 이탈리아 세계슬로푸드대회 참여와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 사찰음식 강연, 영국 한국문화원 킹스웨이 칼리지 사찰음식 전시 등 강연과 시연회 등을 진행해 사찰음식 세계화에도 앞장서 왔다.

우관 스님은 "사찰음식은 한국전통음식이자 K푸드로서 새로운 문화콘텐츠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찰음식 대중화의 초석인 레시피와 간편식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곳에서 사찰음식을 제공해 누구나 쉽게 사찰음식을 맛보고 그 안에 깃든 불교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봉은사 사찰음식연구소 개소는 채식문화 확산과 함께 사찰음식을 통한 사찰의 수익사업으로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현재 불교계에 사찰이 직접 제작해 유통하는 채식밀키트 등은 없는 상황이다.

봉은사 총무국장 탄원 스님은 "사찰음식을 알리면서 부수적으로 수익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전문업체들과 협력으로 해외 유통망도 확대해 현대인들이 찾을 수 있는 먹거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태고종 상진문도회, 10명에 법맥 전승

6월 18일 청련사서 건당식



태고종 상진문도회가 새롭게 입실한 수법제자들에게 법맥을 전승했다.

상진문도회는 6월 18일 양주 청련사에서 제4회 건당식을 봉행했다.〈사진〉 건당식은 특히 불교 전통의식에 따라 봉행돼 의미를 더했다.

건당식은 법주 능허 스님의 종사영반과 소대, 타종 등 가사 점안식과 이운의식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효능 스님의 고유문 낭독, 본격적인 전법의식 등으로 약 3시간 가량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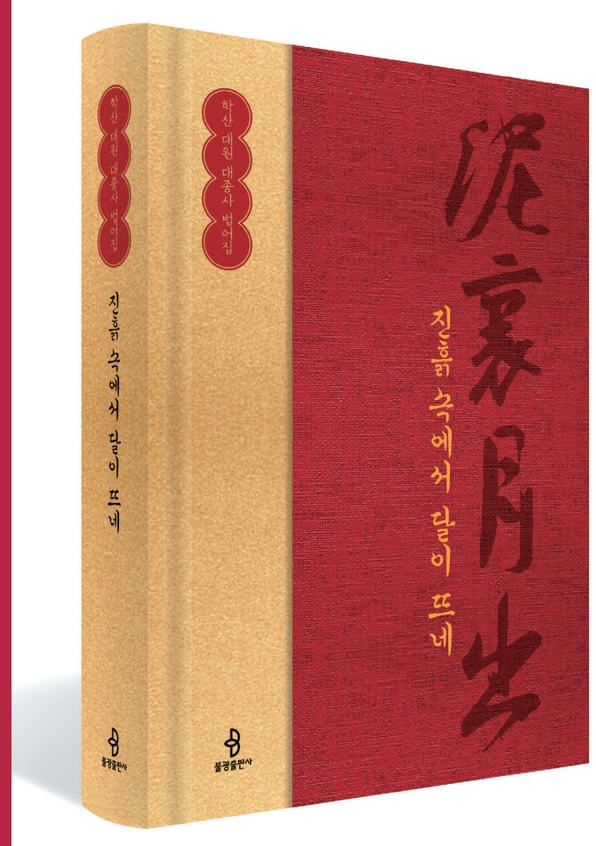
이날 건당식에서 법맥을 이어받은 수법제자는 효념 일봉 스님과 효륜 일암 스님, 효철 일서 스님, 효관 일응 스님, 효우 일홍 스님, 효은 일옥 스님, 효안 법상 스님, 효빈 옥산 스님, 효주 묘각 스님 등 10명. 상진 스님은 수법제자들이 평생 청규로 간직할 수 있도록 각기 계문을 내려 낭독 후 전달하고, 조패와의 · 발을 전했고 법제자들은 호궤합장으로 이를 받아 부처님전에 올려 입실을 고했다.

건당식에 증명법사로 참석한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법어에서 육조혜능으로부터 이어진 법맥 전수 일화와 전법게를 간략히 설한 데 이어 부처님으로부터 계승된 정법안장의 무게를 강조했다.

호명 스님은 "부처님은 가섭존자에 영산회상에서 염화미소로 법을 전한 데 이어 다자탑전분좌(多子塔前半分座, 자신의 자리 반을 내어줌), 열반 후 두 발을 관 밖으로 내어보인 곽시쌍부(槨示雙趺) 총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며 이후 가섭존자가 법을 계승 · 전승하는 과정을 인용해 전법의 참 의미를 짚었다.

이어 스님은 "우리 전통에 따른 전승식으로 새롭게 법을 이은 스님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건당의 전제는 본디 수행을 통해 법을 세워 당간지주를 세우고 깃발을 세워 모든 사람들에게 법을 전할 수 있는 경지임을 알고 끊임없이 정진해 법을 활짝 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주=송지희 기자



한국불교의 살아 있는 큰 스승

학산 대원 대종사의 삶과 수행
우리 마음의 어둠을 단박에 끊어내다!

고암, 전강, 성철, 향곡, 경봉 스님 등
근현대 고승과 나눈 불꽃 튀는 법거량의 기록!
그리고 현대인의 막힌 삶을 뚫는 시원한 일갈!

열네 살 출가 후 이어온 70여 년의 구도!
지금은 접하기 힘든 선문답의 진수와 행行으로써 드러난 대선사의 지혜.
그 향기로운 법어를 엮은 우리 시대 진정한 선승의 단 한 권의 책!

"현실에서 (마음) 공부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는 의미도 없고, 어떤 행복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학산 대원 대종사 鶴山大元大宗師
1956년 출가하여 오로지 구도求道의 길만을 걸어오신 우리 불교 대표 선승.
1986년 계룡산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다시 세울 때까지 제방의 선원을 돌며 효봉, 동산, 고암, 경봉, 전강, 향곡, 성철, 구산, 월산 스님 등 여러 선지식들 회상에서 정진했다. 그동안의 세월의 흔적이 무색하게 지금도 후학들과 나란히 앉아 용맹정진해 오고 계시는 큰스님은 간화선 수행 가풍의 진작과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하고 있다.



학산 대원 대종사 법어집
진흙 속에서 달이 뜨네
泥裏月出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